

고송집 (孤松集) 신흥망 (申弘望)

가계도

15世 흥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신흥망(申弘望)

항목 ID	GC05200848
한자	申弘望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00년 - 신흥망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39년 - 신흥망 별시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52년 - 신흥망 평안도 벽동으로 유배
활동 시기/일시	1652년 - 신흥망 해배
활동 시기/일시	1659년 - 신흥망 풍기 군수에 임명
몰년 시기/일시	1673년 - 신흥망 사망
추모 시기/일시	1691년 - 신흥망의 거처에 낙선당 건립
추모 시기/일시	1984년 - 신흥망 유허비 건립
거주 이주지	신흥망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묘소 단소	신흥망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유허비	신흥망 유허비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승문원 판교(承文院 判校)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신흥규(申應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몽득(申夢得)이며, 아버지는 승지 신지제(申之梯)이고, 어머니는 함안 조씨(咸安 趙氏)로, 조지(趙址)의 딸이며, 부인은 영천 이씨(永川 李氏) 이민환(李民奐)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홍망(申弘望)[1600~1673]은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급제한 뒤, 강릉 참봉(康陵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인조 17) 별시 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1645년 승문원 주서(承文院 注書)가 되었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였다. 1646년 전적(典籍), 병조 좌랑(兵曹 佐郎), 정언(正言), 1647년(인조 25) 예조 좌랑(禮曹 佐郎), 전주 판관(全州 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이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樸)가 자못 패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을 당하였다. 이 때 이시매는 자기의 밝음을 선현을 이끌어 증명하려 하였다. 신홍망은 이를 듣고 직접 그 소(疏)를 보니 실로 모욕적이어서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달 뒤 풀려났다. 1656년 울산 부사(蔚山 府使), 1659년에는 풍기 군수(豊基 郡守)로 나아갈 때 수령들이 잇달아 관청에서 죽으며 흉흉한 소문이 일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부임하였다 한다. 수령이 된 뒤에는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썼으며 가난한 선비를 도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664년(현종 5) 강원도 도사(江原道 都事), 사예(司藝)를 두루 지냈다 이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거의 나아가지 않았다. 말년에는 주로 고향인 의성의 거처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 3권 2책의 『고송집(孤松集)』이 전해진다. 『고송집』은 신홍망의 증손인 신진구(申震龜)가 1739년(영조 15)에 간행하였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1984년 후손들 주도로 건립된 고송 신 선생 유허비(孤松申先生 遺墟碑)가 있다

[참고문헌]

『고송집(孤松集)』

『인조 실록(仁祖實錄)』

『효종 실록(孝宗實錄)』

『의성의 전통』(의성 문화원, 1982)

『아주 신씨 참판공 파보』(대보사, 1985)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장필기, 「조선 후기 의성 아주 신씨가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의성 아주 신씨 음파·구파의 고문서 검토를 중심으로」(『한국 사학회』88, 2007)

장사일록 (長沙日錄)

『장사일록(長沙日錄)』은 신흥망(申弘望 ; 1600~1673)이 이시매(李時樸)를 모함했다는 일로 인하여 평해(平海)로 귀향을 가게 된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임진년(1652년) 9월 당시 지평으로 있던 그는 이시매의 사직상소에 성현을 모욕하는 말을 썼다고 판단하여 이시매를 체직하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리하여 신흥망을 두둔하는 쪽과 이시매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린 정국은 결국 신흥망이 남을 비방했다는 죄가 더 크게 인정되어 11월 3일 평해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망은 11월 18일 평해에 도착한지 1주일 만에 해배(解配)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사일록』은 이러한 사건발생의 모든 과정과 유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기록한 날짜는 12월 21로 되어 있으며, 후손들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 기록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자신의 호가 곡정(鵠汀)·죽창(竹窓)이었다가 다시 고송(孤松)으로 바꾸었음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부분에는 손자 친구가 쓴 행장이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행장은 신흥망의 문집인 『고송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쓴 행장만이 실려져 있다.

문집의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조부의 문집을 편집하면서 자신의 행장은 일부러 빼듯하다. 신흥망의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州)이다. 1639년 별시문과에 급제, 주서(注書)를 거쳐 1646년 정언이 되었고, 이어 사헌부에 재직중 도승지 이시매(李時樸)의 탄핵으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1652년 지평이 되었을 때 호당(護黨)의 죄로 인하여 평해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1659년 풍기군수가 되었다.

서지정보

원서명	孤松集						
현대어서명	고송집						
청구기호	古 3428-367						
편저자(한자)	申弘望(朝鮮) 著;申震龜(朝鮮) 編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3卷, 附錄 2卷, 合2冊
편저자(한글)	신홍망(조선) 저;신진구(조선) 편	간행연도	[英祖 15年(1739)]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28.7×18.7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17.8×13.5cm, 有界, 10行 18字			版心	內向三葉花紋魚尾(不定)	표기문자	
表紙,版心,卷頭書名	表題:孤松集, 版心題:孤松集, 卷首題:孤松集						
序,跋,卷首,卷末	序:上之十五年(1739)...李光庭, 跋:上之十五年(1739)...權相一						
表題紙,內題紙				附	上卷: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撰), 墓誌銘(權相一撰), 下卷:詩(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作)等 4首), 祭文(柳元之等 2篇), 輓詞(柳元之等 10篇), 樂善堂銘, 文集後識(申震龜識)等		
藏書記,內賜記							
刊記							
자료소개	17世紀 학자 申弘望(1600-1673)의 詩文集						
목차	卷 1:詩(檜山逢寒食等 108首), 卷 2:詩(赴召命到漢江聞遞即回程等 132首), 卷 3:疏(陳情乞省疏等 2篇), 祭文(祭旅軒張先生文等 7篇), 附錄:上卷: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撰), 墓誌銘(權相一撰), 附錄:下卷:詩(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作)等 4首), 祭文(柳元之等 2篇), 輓詞(柳元之等 10篇), 樂善堂銘, 文集後識(申震龜識)等						
합철							
소장본							
인記	東厓, 仲綏, 金履萬, 鶴鳴齋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85-16-70-C						

문집해설

서명	孤松集	저자	申弘望 著, 申震龜 편
현대어서명	고송집	간행년대	1739년(영조 15).
청구기호	古 3428-367		
책수	3 권 부록 2 권 합 2 책	판본	목판본(후쇄) 사이즈 29.8×18.5cm.

17세기 학자 申弘望(1600-1673)의 시문집이다. 申弘望의 자는 望久, 호는 孤松, 본관은 鵝洲, 承旨 申之梯의 아들이다.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9년(인조 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지평·정언·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지평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도승지 李時樑의 행동에 대한 是非를 가리는 과정에서, 黨論의 타파에 힘쓰지 못할망정 오히려 護黨한다는 탄핵을 받고 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에 풀려났다. 1659년(효종 10) 풍기군수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풍기군에서는 부임하는 사람마다 연달아 관청에서 죽는 변고가 일어났다. 따라서 관료들 사이에서 풍기군수로의 부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申弘望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부임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孤松集>>은 본집 3권에 부록 上下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에는 詩 108수(檜山逢寒食 외), 권2에는 詩 132수(赴召命到漢江間遞卽回程 외), 권3에는 疏 2편(陳情乞省疏 외), 祭文 7편(祭旅軒張先生文 외), 부록 상권에는 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 撰), 墓誌銘1편(權相一 撰), 부록 하권에는 詩 4수(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 作 외), 祭文 2편(柳元之 외), 輓詞 10편(柳元之 외), 銘 1편(樂善堂銘), 文集後識(申震龜 識) 등이 수록되어 있다. 申弘望의 증손 申震龜가 지은 跋文에 따르면, 李孤山선생이 申震龜에게 증조부의 유고를 煙歿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여, 유고 가운데 전할만한 것을 抄選해 두고 李先生으로부터 서문을 받아 간행하려 했다. 그러나 李先生이 갑자기 운명하여 문집 간행이 연기되고, 유고는 40여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 노년에 이른 申震龜는 문집을 간행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간행을 재추진하였는데, 曾祖父의 유고를 들고 李光庭을 찾아가서 訛謬된 부분을 수정받고 서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孤松集>> 2책을 간행하였다. 문집에는 간행시기를 '己未年' 혹은 '上之十五年'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어느 王代에 간행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申弘望의 사망(1673년) 이후 己未년으로 왕의 재위기간이 15년에 해당하는 시기는 1739년(영조 15) 뿐이다. 따라서 <<孤松集>>은 173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웅섭)

문집개요

문집명	고송집 (孤松集)(17c)
간략서지	古 3428-367 孤松 申弘望의 문집. 5 권 2 책.
간략해제	1739 년(영조 15) 曾孫 申震龜가 간행한 것이다. 저자가 죽은 직후에 그의 문하에 드나들었던 李惟禱(1624-1701)의 발의로 遺文 중에서 글을 가려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737 년(영조 13) 경부터 曾孫 申震龜의 발의로 후손들이 뜻을 모아, 영남지역의 山林이었던 訥隱 李光庭(1674-1756)이 序文과 行狀을 쓰고 淸臺 權相一(1679-1759)이 墓碣銘과 跋文을 쓴 후, 후손인 申致雲이 글씨를 써서 판각 하여 문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 1 권과 2 권은 모두 시인데, 신흥망의 시는 靈物風景學文 등을 주제로하면서 순후하고 청고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권에는 陳情乞省疏, 本縣弊瘼疏 등 疏 2 편과 張顯光, 李廷幾 등에 대한 祭文 7 편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제 1 권에는 李光庭이 쓴 저자의 行狀과 權相一이 쓴 墓碣銘이, 제 2 권에는 저자가 全州判官으로 부임할 때 黃金應祖, 申悅道, 李元圭가 그를 위해 써준 글의 序文 4 편, 柳元之, 李之煜이 쓴 저자에 대한 祭文 2 편, 柳元之, 金啓光, 羅以俊, 南天漢, 柳世哲, 柳世翊, 金燧, 李玄逸, 李惟禱, 李惟樞이 쓴 저자에 대한 輓詞 9 수, 李惟禱이 쓴 樂善堂銘과 그 서문, 曾孫 申震龜가 쓴 文集後識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개

편저자	신흥망 (申弘望)
저자개요	1600-1673 (선조 33-현종 14)字: 望久, 號: 孤松, 本貫: 鵝州, 父: 之悌, 母: 咸安 趙氏
저자내용	1627 년(인조 5) 進士試에 합격하고, 1638 년(인조 16) 천거로 康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39 년 別科에 합격하였으며, 1644 년(인조 22) 承政院 注書 兼 春秋館 記事官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후 노모의 병을 이유로 낙향하였고, 곧이어 체직되었다. 1646 년 典籍, 兵曹 佐郎, 司諫院 正言, 禮曹 佐郎를 거쳐 1647 년(인조 25) 全州 判官에 부임하였다. 1650 년(효종 1) 母夫人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마친 후 곧 司憲府 持平에 제수되었다. 이때 持平 李溫發이 都承旨 李時樸를 탄핵하자 이시매는 疏를 올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는데, 신흥망은 그 소의 내용이 선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일로 그는 자기 당파를 비호한다고 지목되어 碧潼郡에 유배될 뻔하였으나 正言 鄭斗卿(1597-1673)의 변론으로 平海에 中途付處되었고, 곧 사면되었다. 1656 년부터 1658 년까지는 蔚山府使에 재직하였는데, 이 곳에 그를 기리는 淸德碑가 세워졌다. 1659 년부터는 수년 동안 풍기군수로 재직하였다. 그후 강원도 都事, 成均館 司藝, 宗簿寺 正 兼 春秋館 編修官, 承文院 判校 등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1673 년(현종 14) 정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묘소는 義城縣 下川 黑石里로 정해졌다. 그의 학통과 교우관계를 보면 旅軒 張顯光의 문하에 드나들었으며, 李廷幾, 黃金應祖, 申悅道, 李元圭 등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咸安 조씨인 趙址의 딸이었고, 부인은 永川 이씨인 李民寅(1573-1649)의 딸이다.

내용개요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李光庭(1674-1756)이 지은 孤松集의 序이다. 저자의 부친인 梧峯 申之梯(1562-1624)는 父祖의 업을 이은 濟美한 이었는데, 저자도 역시 그 전철을 이어 '能子'라고 이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孤山 李惟章이 저자의 글 중에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가려 두었는데, 저자의 증손인 震龜가 필자에게 申之梯의 문집인 <<梧翁集>>과 아울러 序文을 써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行狀과 序文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권제 권제목:卷一

詩

檜山逢寒食-在檜山衙中作詩年十六歲(1615), 二, 三, 謹次槐山舅氏-
趙公亨道號東溪-韻, 輓槐山舅氏, 輓敬亭李公-民晟, 庭畔百日紅盛開因寓感戀之懷,
次趙壽翁-松年-韻, 二, 閒趙壽翁往立巖謁旅軒-張先生顯光-迴吟寄一絕, 苦雨, 二,
簡李子慎-廷機號漫翁, 次申君澤-濡-韻, 二,
趙壽翁置酒邀近地諸伴會飲罷後申君澤賦長律一首遍寄諸伴求和遂次其韻-按此二詩,
丙子兵亂後作(1648), 二, 次趙壽翁諸伴聯句韻-時余置酒邀諸伴會飲, 疊前韻謝諸伴,
送金司書中表兄貫之-宗一-赴瀋陽, 重陽日有懷,
往在癸亥年先君養病于鷹齋至今十有五年而孤兒又避痘來寓于此徘徊追慕向之林亭
溪谷杖屨所及之地宛然如昨齋房四壁墨跡黝然雖不可明謹認其手筆之猶存摩挲嗚咽
自不能已齋門外有小池先君所嘗修鑿種蓮逍遙之處而今池廢蓮絕反爲牛馬所踐踏此
亦豈非與人事變遷者歟感舊之餘情見乎詩(1637), 二,
大雪入夜不止凡坐寒齋心神悄然因賦之, 二, 雪後寒甚獨坐口占, 夜坐有懷,
余少日從事學業耳有自修之志至今年迫四十學日退而業未進終不免爲鄉黨腐儒之歸
白首紛如之歎自爾而至且男兒生世縱不能致君澤民庶幾立揚當時上效涓埃之補下爲
父母之榮初豈無期佇於心者而崎嶇場屋虛過半生蹉跎潦倒已無及焉則古人所謂富貴
吾所自有者其亦誤矣然而若以得失亂吾方寸而不知窮達之有命亦非吾之所自期也寒
齋歲暮風雨淒然掩卷長歎忽忽有魚鳥湖山之思因援筆遣懷, 夢見金司書覺後有懷, 二,
憶末兒, 輓柳浩然, 輓申密陽汝涉-楫號河陰, 寄子慎-時子慎在霞峴, 無題輓-代人作,
輓丹丘孫上舍-胤業, 輓趙進士內從兄-咸英, 歲時病未省墓悽感述懷, 立春述懷,
次水山李生-老一-草堂石門韻, 早朝過鳥嶺, 次驪江巖寺韓相韻, 述懷, 二, 喜雨,
九月十二日酒席敬次仲父韻, 二, 三, 四, 階菊政妍咸而賦之, 贈別徐明府-
貞履.時移拜清風郡, 次子慎鳶魚亭韻, 二, 次沈幼清-徵-酬唱韻, 二, 又次幼清韻寄示-
時幼清在邑中, 七月初二日天宇開霽星月交映苦雨之餘胸襟爽然, 次冶隱韻遣興, 二,
三, 次豚兒觀漲韻, 秋居漫興, 二, 三, 四, 次幼清次巖明府-鼎耆-韻來示仍和其韻,
又次幼清韻, 秋夕偶書, 秋夜偶吟,
家人告燈油乏絕明松堂上男讀書女執工各其職也士女當以勤儉爲本因賦以勉之,
次子慎投贈韻, 留別李立卿-廷相-兄弟, 次杜詩絕句贈立卿兄弟, 二,
簡內從兄趙子有-咸一, 次杜詩秋興八首-月課題, 二, 三, 四, 五, 六, 七, 八,
重陽日感懷, 次子慎鳶魚亭韻, 二, 送申君澤之日本, 二, 暮春, 惜春,
篋中有亡友金謙可-然-詩篇披閱數回拭淚而書,

今年春不雨夏多潦農事失時西成無望歎傷之懷形於詞，
庭畔有百日花樹雙幹挺立去冬寒甚花樹盡枯今年新叢茂盛開花可愛，
次李德輝臺巖會韻，二，次嚴明府，次李德輝韻，
沈幼清來傳嚴明府重陽會酬唱韻因和之，又次公堂酬唱韻，次鄭金兩友酬唱韻，
次尹元賓-以觀-軒亭韻，二，三，次子慎韻題元賓草堂，二，三，輓申汝遠-志道

권제

권제목:卷二

詩

赴召命到漢江間遞卽回程-甲申五月以注書陳疏歸省親癸酉正月上降旨特召(1645)，
竹山道中偶吟，早過龍安坪，路逢白足細語金剛形勝，奉呈嚴明府行軒，二，客中述懷-
時寓在齋舍，見懷，松林，雨後偶吟，
三月十九日姊喪發還故山時余寓在齋舍不得哭送其日曉登山麓瞻望一慟而迴拭淚書
懷，二，漫興，憶草堂，二，聞杜鵑，春望，新緣，題亡友林汝平-以準-草堂，
送子慎觀月城-按紫巖公時爲府尹，二，三，輓南士鎮，宿永順村舍，途中有感，
滯雨水橋，次赤羅宰金汝明臺巖酬唱韻，又次酬唱韻，輓沈府使-按此在全州時作，
竹筍-與沈金兩生酬唱，逆旅中與金述初鄭慶餘諸伴會飲，次金次酬唱韻-
金乃主倅弟也(沈)，二(沈)，三(金)，四(金)，
壬辰十月夢竄命將向碧潼到水山留別權季明-以亮(1592)，二，在平海配所謹次季父韻，
追次李上舍翼世韻寄贈，次浩然亭韻-亭在平海越松浦黃君湜家亭也，
次李立卿蕙湖里亭韻，二，次眞城養眞堂韻呈李子和-守誠，
前冬余蒙恩譴路過花山鄭仲則-仗-
追送到府城南聯枕而宿仍以別語贈行李翼之間而和寄二絕追次其韻呈仲則益之兩友，
二，東子慎時慎在洛陽，輓李懷仁汝廓-弘祚，次臥雲居士鄭仲則韻，二，次水落臺韻-
按水落臺在安東甘泉水石奇勝辛丑九月鶴沙金公拙齋柳公木齋洪公與一時諸賢約會
臺上相酬唱時公任基川送酒助歡仍和其韻，輓申君-坂，輓金經歷德以-震遠，
次南塘酬唱韻，二，三，輓護軍舅氏-趙公遵道，輓南僉使大哉-海宇，輓李君姬老，
次沈幼清韻贈李子慎-按李公三代守忠州，輓李上舍士明-重炫，次李立卿漁梁韻，二，
申君垓卜居於新堤湖邊前年春過其居草堂瀟灑景趣可愛壁上有次久玉-玖-
短律諸人多和之仍次其韻，二，輓成江界汝習-以性，輓李君景栢，輓李君景樟，
詠盆上紅梅，二，三，輓李君廷望，李方伯尙眞歷訪而去中路見寄仍次其韻，
輓鄭參奉仲則，二，次丁上舍君獻-瑜-韻-
聞君獻作乞糧行中路阻雨徑還余以穀斗教其窮，二，戀盆梅，贈別申方叔-塿-謫行，二，
輓丁上舍君獻，次子慎韻，又次子慎韻，二，次子慎鳶魚亭韻，二，三，四，疊前韻，
次景贊亭韻-亭在佳音里，次趙顯甫-咸世-五宜軒韻，冰院口號-時鄉中老友多會，二，
三，洗心亭口號-亭在水院溪邊，鳶魚亭酬唱韻-
吾鄉老友皆來會張君聖源亦不期而至時流頭也，疊次前韻以謝主人，二，三，四，
輓季舅氏趙公東道，贈沙塢金稚玉-尙琦，二，三，次稚玉首尾體韻，二，三，
再次首尾體韻，二，又，二，輓金君時省，輓南君海容，次申方叔盆梅韻-時方叔蒙赦還，
輓鶴沙金丈-應祖，輓洪君是榮，輓南大受-海準，樂善堂成後偶吟，二，三，四，
持寶寺酬唱韻，輓朴寶城-宗杓，輓柳善久，次洛臯堂韻-
按洛臯堂卽故正李公爾松江亭也

권제	권제목:卷三
陳情乞省疏 (1)	1644. 저자의 고향인 경상도 의성현에 계시는 홀어머니가 82 세로 병이 드셨으나 자신이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하고, 承政院 注書職의 遞職을 청하는 글이다.
本縣弊瘼疏 (1)	의성현감을 대신하여 지은 소로 본현의 두가지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첫째는 1616 년(광해군 8)에 姜澁이 敬差官이 되었을 때, 의성현의 年分 중에서 下之上과 下之中을 勒定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舊習이 되어 명분에 없는 田稅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下之上과 下之中의 結數를 줄여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조정에서 兩班家の 奴子를 조사하여 束伍軍에 充定하려고 하자 私賤들이 모두 도망하려고 하는 형편인데, 의성현은 특히 속오군의 物故가 많아 그 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읍의 대소를 따라 충정할 속오군의 수를 정해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祭旅軒張先生文 (8)	1638(?). 저자의 스승인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추모하며 쓴 제문이다. 선생의 道學을 깊이 흠모하였던 후학들이 그의 죽음에 임하여 느꼈던 비통함을 서술하였다.
祭朴上舍仲宣文 (9)	族兄 朴僞의 2 주기에 추모하며 쓴 제문이다. 저자의 선친인 申之梯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외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朴僞은 그의 外從兄으로서 특히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며, 저자보다는 열 한 살 손위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함께 交遊하였던 추억과 저자의 부친이 병들어 돌아가실 때 그 수발을 함께 하였던 誠意 등을 되새기며 그를 추모하는 내용이다.
祭姊兄李上舍文 (12)	저자의 매형인 眞城 李氏 李擧의 2 주기에 추모하며 쓴 제문이다.
祭尹君元賓文 (14)	친구인 尹以觀을 위해 쓴 제문이다. 저자는 그와 30 년간 교우하였는데, 그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크게 쓰이지 못하였던 것과 단명함을 애도하였다.
祭護軍舅氏文 (15)	저자의 외숙인 趙遵道를 위해 쓴 제문이다. 아름다운 덕과 품행이 남달랐음을 추모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와 하는 내용이다.
祭柳甥時彥文 (16)	사위인 柳重河의 葬禮에 임하여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이다. 저자의 집안에 장가든 후 30 년동안 한 번도 失行한 적이 없었으니, 유독 사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親愛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으로 그의 인품을 칭송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無病하고, 아내가 다행히 살아 있어 아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죽기 마련이라는 점을 들어 亡者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祭李子愼文 (17)	李廷機의 장례에 임하여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이다. 그의 뛰어난 자질을 찬탄하고 벼슬살이에서의 浮沈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附錄上
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 1738. 訥隱 李光庭이 지은 신흥망의 행장이다. 저자의 가계와 官歷 등을	

松申先生行狀 (附錄上 1) 자세히 소개하고, 그가 벼슬에 나아가기 전부터 명망이 자자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君子로 여겼다는 것,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直言을 서슴치 않았으며,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남달리 청렴했다는 것, 제사를 받들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성심을 다하였다는 것, 친척 중에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나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힘껏 도와 주었다는 것, 집 앞의 작은 언덕에 있던 소나무를 보고 스스로 호를 '孤松'으로 짓고, 집 곁에 당을 지어 '樂善堂'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손들에게 善을 행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 그의 스승인 旅軒 張顯光이 '克世其家者'라고 평가하였다는 것 등의 내용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평소에 선친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墓碣銘을 구하는 것을 구차하다고 여겨 자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는 世系와 官次만을 적어 비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구하지 못하도록하여 후손들이 그의 말을 따라 비를 세웠다는 것과 저자의 증손인 震龜의 부탁과 후세의 師範이 되는 저자의 언행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의 문집을 撰하게 되었다는 등 문집 간행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墓碣銘 (附錄上 10) 1739. 前 司憲府 掌令 權相一(1679-1759)이 撰한 墓碣銘과 그 서문이다. 신흥망의 官歷을 서술하고, 신흥망이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급제한 것을 가슴 아파했던 일, 모친이 별세한 후에 자신이 이미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묘에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았고, 家廟를 배알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에 늘 勤愼하였다는 점, 자손들에게 禮法을 잘 가르쳐, 후손들이 친척이나 鄉隣을 대할 때 곡진하였고, 고아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 선행을 베풀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신흥망이 그 才器에 비하여 벼슬이 높이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뒤에 신흥망의 가계와 후손에 대하여 약술하고, 신흥망의 증손인 震龜와 李光庭의 청으로 墓碣銘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끝에 墓碣銘이 수록되어 있다.

권제	권제목:附錄下
送完山半刺赴任所 (附錄下 1)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저자를 위해 쓴 시와 서문이다. 서문은 저자가 乞郡한 것은 85 세 되신 노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孝에서 나온 것이고, 또 전주는 저자의 부친이 府尹을 지낸 곳으로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선정을 베푸는 것은 부모에 대한 孝일뿐만 아니라 곧 임금에 대한 忠이 된다는 내용이다.
送申正言之任全州判官序 (附錄下 2)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漫浪 黃가 저자를 위해 쓴 시의 서문이다. 집안이 대대로 業儒에 힘써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도 이에 있으며, 또 전주는 선친이 부윤으로 계시던 곳이니 이 곳에서 선정을 베푸는 것이 또는 어머니의 바람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送申望久通判完山序 (附錄下 4)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懶齋 申悅道(1589-1647)가 저자를 위해 지은 글의 서문이다. 저자가 어머니의 봉양에 급급하여 전주 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 주변의 知人들은 애석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저자는

	이를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孝誠에서 나온 것이며, 또 선친의 뜻을 이어 선정을 베풀고자 하니 전주에 孝道의 教化가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送申望久通判完山序 (附錄下 5)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鋤谷 李元圭가 저자를 위해 지은 시와 그 서문이다. 저자가 전주판관을 자칭한 것은 단지 자신의 영예를 구하거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자신의 道를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祭文 (附錄下 6)	柳元之, 李之煜이 저자를 위해 쓴 제문 2 편이다.
輓詞 (附錄下 9)	柳元之, 金啓光, 羅以俊, 南天漢, 柳世哲, 柳世翊, 金燧, 李玄逸, 李惟禕, 李惟樞이 쓴 저자에 대한 만사 9 수이다.
樂善堂銘 (附錄下 12)	저자가 지은 樂善堂을 그의 손자인 國模가 개수한 후에 저자의 문인이기도 하였던 孤山 李惟禕(1624-1701)이 지은 銘과 그 서문이다.
文集後識 (附錄下 13)	1739(?) 저자의 曾孫인 申震龜가 쓴 <<孤松集>>의 後識이다. 일찍이 孤山 李惟禕(1624-1701)이 발의하여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죽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1737 년(영조 13) 경에 형제들이 다시 뜻을 모아 문집 간행을 준비하여 1739 년(영조 15) 이광정을 뽑고 誤字를 바로잡고 族姪인 申致雲에게 글씨를 써서 판각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서술하고, 遺集이 많지만 힘이 모자라 그 일부만을 신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적고 있다.
孤松先生文集跋 (跋 1)	1739. 淸臺 權相一(1679-1759)이 쓴 跋文이다. 저자의 성품과 품행을 기리고, 그가 벼슬길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었는데, 향리에서 世教를 베풀어 오히려 百世의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박현순)